

## 제 19 대 한국조류학회장 입후보 공약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윤환수



제 19 대 한국조류학회장 후보 성균관대학교 윤환수입니다. 저는 학부때부터 조류학에 매료되어 충남대학교 부성민 교수님의 지도 하에 여러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석사과정에서는 홍조류 비단풀 (*Ceramium kondoi*) 종의 범위, 박사과정에서는 다시마목의 분자계통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바다내음을 좋아하는 저는 홍조류의 계통 진화, 갈조류가 포함된 대롱편모조류의 분류 및 진화, 조류의 유성생식 진화, 광합성 생물의 기원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조류학회는 학생회원으로 시작하여 위 사진의 제 1 회 워크샵 참가 (93 년) 및 여러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 30 여년 동안 학회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99 년부터 법인이사, 학술위원, 편집위원, 국제협력위원장 및 총무이사로 봉사하였고, 현 18 대에서 우리 학회의 부회장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현재까지 앞선 선배회원님들의 노력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해 왔습니다. 400 여명의 학회 회원이 매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ISS, APPF 등의 국제대회를 유치하였고, 학회지인 ALGAE 는 높은 인용지수 (3.2)로 수생생물분야 15 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국문지 수생생물은 21 년부터 출판을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퇴임교수님들의 자리가 충원이 안되어 앞으로 회원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학회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류의 중요성을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널리 알리고 학회위상을 높이는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19 대 학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조류학회”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학회의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1) 국제원생생물학회 (International Congress of Protistology) 공동개최:

국제원생생물학회는 매 4 년에 한번 열리고, 조류를 포함한 모든 진핵생물의 진화/생리/생태/응용 등의 전문가 500 여명의 참가하는 국제회의입니다. 2018 년 밴쿠버에서는 PSA-ISOP 공동주최가 있었듯이 조류학/원생생물학 관련분야의 공동주최는 일반적입니다. 2025 년 6 월에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에서 한국원생생물학회와 우리 학회가 공동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ICOP 2025 Seoul 미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 학회지 위상 제고:

우리 학회의 학술지 ALGAE 와 수생생물은 편집위원장 김광용 교수님과 최창근 교수님의 봉사와 공헌으로 저명학술지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공고히 하고 학회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바침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18 대 임원진에서 추진하였던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후임 편집위원장의 선정 및 학회 발간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 학회 회원 증대 및 회원 간 공동연구 증대 노력:

세계 각국의 해조류 관련 학회 회원들이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해조류의 중요성은 널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도모하고, 연관 학회와 협력하여 조류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학 및 국책 연구소 등에 임용될 수 있도록 기초를 쌓겠습니다.

조류는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탄소저감, 유용물질 추출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의 시도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공동연구가 필수적으로, 저는 학회 회원 간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회 차원에서 팀을 구성하여 국가 R&D 와 기타 대형 연구과제 수주를 위하여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4) 재정 확보 노력:

학회 회원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도모하고, 제 18 대 임원진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받아 재정부회장님을 모시고, 정기학회에 연관 기관 (예,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및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조류학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학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젊은 후배님들의 협조를 통하여 내실 있고 탄탄한 학회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9 대 한국조류학회 회장 후보

윤환수 올림